사순절 묵상집

평화

칼튼 존슨 목사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대림절 둘째 주간은 평화의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 땅에 평화를,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림절과 연관된 구절은 아니지만, 오늘 묵상을 위한 이 구절은 친숙합니다. 팔복에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주곡이라고도 불리는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 정신에 대한 간결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통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일련의 선언에 대한 명칭은 라틴 벌게이트 번역본에서 유래했습니다. *Beati*는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로 번역됩니다.전통적으로 영어로는 "축복"으로 번역되지만, "행운"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운이 좋은 것입니다.평화로운 지역사회와 학교를 찾으면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평화로운 회중의 온전한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단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도시, 심지어 국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글이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그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화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죽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그들의 목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종종 "운명의 반전"을 외치는 것으로 식별됩니다.예수님은 청중의 기대와 반대되는 존재를 선포하셨습니다.그는 그들이 이해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유지자(peacekeeper)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를 찾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전쟁을 하는 자와는 정반대입니다.더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 유지자보다 평화 문제를 더 멀리 바라본다는 점입니다.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평화 유지자와 달리 화평케 하는 자는 조용히 앉아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평화를 거부하는 시스템에 관여하여 평화를 만듭니다.

묵상

1. 대림절 시기인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2. 지역사회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소서.